

동물복지 국내·외 현황 및 전망

Current Status of Animal Welfare

박진언 (Jin-Eon Park)

하림

Harim Corporation

I. 서론

2018년 UN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5,875점으로 전 세계에서 57위로 평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및 기대치를 고려한 수치로 평가요소는 GDP, 복지, 건강한 삶에 대한 기대치, 자유, 관용, 부패인식 등이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08년까지만 해도 102위로 평가되었는데, 10년 사이 행복지수가 월등히 높아졌다.

이와 같이 국민 행복지수 즉 삶의 질이 높아지면 국민의 먹거리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첫 번째, 곡류의 소비감소와 육류의 소비증가가 뚜렷히 나타난다.

쌀의 소비량은 1985년 128.1 kg에서 2013년 67.2 kg으로 52% 감소하였다. 하지만 육류의 소비는 1985년 14.4 kg에서 2013년 42.7 kg으로 297% 증가하였다. 현재 감소추세가 주춤하긴 하지만, 이미 주식인 쌀의 소비량은 하루 2공기도 먹지 않을 만큼 많이 줄어들었다.

소비의 선택기준 역시 보다 전문화된다. 기존에는 홍보용 광고 및 입소문으로 정보를 얻었다면 지금은 인증마크, 생산과정 등의 정보를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다시 공유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와 같이 정보의 다양함으로 소비자는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찾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고자 HACCP, 친환경, 동물복지 인증이 생겼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물복지 는 사육과정 확대 및 불필요한 스트레스 없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동물복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복지’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혼동을 일으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복지’와 연결시키면서 ‘인간의 복지수준을 동물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에서 말하는 복지의 개념은 인간

*Corresponding author: Jin-Eon Park
Harim Corporation, Iksan 54517, Korea
Tel: +82-10-6489-0893
Email: 202078@harim.com

표 1. 1인당 연간 농축산물 소비량 변화

(단위 ; kg)

	85	90	95	00	05	09	10	11	12	13
○양곡										
쌀	128.1	119.6	106.5	93.6	80.7	74.0	72.8	71.2	69.8	67.2
보리쌀	4.6	1.6	1.5	1.6	1.1	1.2	1.3	1.3	1.3	1.3
밀	32.1	29.8	33.9	35.9	31.8	31.4	34.4	35.0	32.2	-
콩	9.3	8.3	9.0	8.5	9.0	7.6	8.3	7.8	8.0	8.0
서류	3.1	3.3	3.0	4.3	4.2	3.4	3.5	3.4	3.1	-
옥수수	3.1	2.7	3.3	5.9	4.9	4.0	3.9	3.7	3.7	-
기타	1.7	3.3	3.5	3.8	3.8	3.8	4.3	3.7	-	
○축산물										
쇠고기	2.9	4.1	6.7	8.5	6.7	8.1	8.8	10.2	9.7	10.3
돼지고기	8.4	11.8	14.8	16.5	17.8	19.1	19.3	19.0	19.2	20.9
닭고기	3.1	4.0	5.9	6.9	7.5	9.6	10.7	11.4	11.6	11.5
우유	23.8	42.8	47.8	59.2	62.7	62.3	64.9	70.7	67.2	71.6
계란(개)	131	167	184	184	220	238	236	232	-	-
○원예작물										
채소류	98.6	132.6	160.6	165.9	145.5	152.5	146.1	173.3	160.6	170.0
과실류	36.0	41.8	54.8	58.4	62.7	67.7	62.4	62.4	61.8	63.2
○수산물	-	-	-	36.8	49.5	49.8	51.3	53.5	-	-

자료 : 식량정책과, 축산경영과,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 e-나라지표
 주 : 식품별 수급계획 및 실적기준

의 복지와는 다르게 인간이 동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윤리적인 관점으로 동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를 말하는 것이다.

동물복지의 정의는 시대의 흐름과 표명주체에 따라 변화된다. 세계보건기구(OIE)에 따르면, 동물복지란 동물이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고통, 두려움, 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으로 말한다. 또한 미국 수의사 협회는 동물에게 적절한 주거환경의 제공, 관리, 영양제공, 질병예방 및 치료, 책임감 있는 보살핌, 인도적인 취급, (필요한 경우)인도적인 안락사 등 동물의 복리와 관련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인간의 의무라 정의하였다.

II. 본론

1. 해외 축산선진국의 동물복지

우리나라에서 동물복지란 개념은 매우 생소하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180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다. 동물복지의 본격적인 시작은 1822년 영국의 동물학대 방지에 대한 근대적인 법률인 ‘가축학대에 관한 법(III Treatment of Cattle Bill, 1822) 제정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이 법은 소 이외의 산업동물과 곰 싸움, 투계, 실험동물 제한 등의 내용들을 첨가해오다 1911년 동물보호법(Protection of Animals Act)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후 1964년 Ruth Harrison의 ‘Animal Machines’이라는 책을 통해 동물이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안, 두려움, 좌절 및 기쁨 등을 느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여론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피터싱어(Peter Singer)의 동물해방(1975)이 발표되면서 동물복지를 윤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까지 확산되게 되었다.

(1) EU

EU의 동물복지는 1978년 “농업목적으로 사육된 동물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정의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정”에서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동물복지 관련 입법과 정책도입을 진행하였다. 이후 1999년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EU집행위원회가 동물복지 관련정책을 결정한다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최근 “EU 동물복지 지침(2012-2015)”을 발표함으로써 보다 쉽게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발전하고 있다. EU 각국의 동물복지 인증제도시행은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물은 농가직판 판매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이루어지며, 생산자 단체나 조직을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판매가 이루어진다. 가격은 품목에 따라 높게는 50% 이상 비싼 경우도 있으나, 보통 10%-20% 높게 판매되고 있다.

표 2. EU의 축종별 동물복지 주요 기준

		주요 기준
농장사육	산란계	- 동지 제공 - 마리당 최소15 cm 헛대 공간 제공 - 깔짚 제공 - 자유롭게 먹이 접근
	육계	- 33 kg/m ² 사육기준 - 조명, 깔짚, 먹이, 환경시설 개선
	송아지	- 생후 8주 이후부터 폐쇄된 개별축사 사용금지
	돼지	- 고미 4주 후부터 출산예정일 1주 전까지 암태지 스톨 사육 금지
운송	- 8시간 이상 동물을 운송하는데 사용하는 차량은 개량한 후 공식 인증을 받음. - 갓 태어난 동물 및 출산하지 1주일 내 암컷 운송 금지 - 위험항법장치 의무적 설치(8시간 이상 장거리 운송의 경우) - 동물 운송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 • 2008년부터 동물취급인증을 받아야 함.	
도축	- 업체는 표준작업절차를 개발 및 개발된 기절방법의 효율성을 평가함. - 도축장 설계 시 동물복지 고려함. - 도축장에 동물복지 전담자를 둔(연간 1천 마리 이상 가축 또는 15만 마리 이상의 닭을 도축하는 도축장). - 기절장비 생산자는 사용지침을 제공해야 함. - 신규 도축장 건설과 신규 기절장비 및 시설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가연구소센터 설치 • 동물복지자격증 발급 인가 업무도 담당 - 전염병이 발생하여 대규모 살처분이 필요한 경우 관계당국은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좀 더 책임을 갖고 계획, 점검, 보호해야 함.	
기타	- EU 내 개·고양이 가축의 수입, 수출 및 판매 금지	

자료 : 김태근, EU 동물복지 개념의 확대와 의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2) 영국

영국은 1822년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국가이다. 1979년 영국정부 독립자문기구인 농장동물복지위원회(Farm Animal Welfare Council : FAWC)를 설립하여 가축의 사육, 수송, 도축, 시장 유통, 정부의 입법 활동 등의 분야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정부 자문을 진행하였다. FAWC가 1993년에 제시한 “동물의 다섯 가지 자유”(표 3)는 농장동물복지의 기본이 되어 축산업계가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동물복지활동과 입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oyal Society for the

표 3. 동물의 다섯가지 자유

항목	주요 내용
기아와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hunger, thirst and malnutrition	충분한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선한 물과 먹이에 쉽게 접근하고 충분한 영양을 유지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physical and thermal discomfort	잠자리와 안락한 휴식공간을 포함한 적절한 환경유지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pain, injury and disease including parasitical infections	질병 예방 및 신속한 진단과 치료
정상적인 행동 표현의 자유 Freedom to express normal behavior	충분한 공간, 적절한 시설, 그리고 동료들과 어울림 유지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fear and distress	정신적 고통을 피할 수 있는 환경 유지

FAWC(The Farm Animal Welfare Council), 1993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RSPCA)는 영국의 동물복지법의 집행과 관련된 특별사법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정책홍보, 캠페인, 교육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동물복지 등 각종 인증제도의 심사와 운영은 정부가 직접 실시하지 않고 정부의 위임을 받은 민간단체나 업체가 실시한다. 영국은 RSPCA가 마련한 복지기준을 근거로 가축의 사육·취급·운송·도축·정책을 홍보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1994년 이러한 기준을 시행하기 위해 자회사인 프리덤푸드 주식회사(Freedom Food Ltd)를 설립하여 동물의 5가지 자유를 중심으로 한 동물복지 기준에 알맞게 생산되는 축산물을 인증하는 “Freedom Food”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운영 중이다. Freedom Food는 영국에서 시행되는 동물복지 인증제도 중의 하나이다. 또한 영국 맥도날드, 버거킹과 같은 식품유통업체도 자체 규정을 수립하고 있다.

(3) 독일

독일 동물복지 관련 법령으로 1933년 “제국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그것을 기초로 하여 1972년 “동물보호법”으로 대폭 개정하였다. 독일 연방정부의 농장동

물복지 정책 원칙의 초점은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동시에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식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산란계에 대한 축산시스템이 최근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복지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이는 주로 기존의 배터리(battery) 케이지에서의 사육이 2010년 1월 1일 이후 금지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독일은 EU 기준에 도달하는 독립적인 동물복지 라벨(label)의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이 동물복지기준에 따라 제조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복지 라벨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되는 식품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독일의 대부분 동물보호 정책과 규정은 EU의 정책과 법령을 기초로 제정되었다.

독일의 주요 동물복지 관련 법령과 규정은 동물보호

법, 가축사육법, 농장동물보호법, 동물건강법(동물병예방법), 동물 수송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독일의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도는 민간기업 및 단체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하나로 독일동물복지협회에서 시행하는 동물복지 라벨(Tierschutzlabel)을 들 수 있다. 이 라벨은 Entry(별 1개)와 Premium(별 2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4) 미국

미국은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성문법을 제정하고 시행한 최초의 국가이다. 또한 오랫동안 동물의 인도적 대우가 문명사회를 대변하는 주요 가치들 중 하나라고 간주하고 있다. 1966년에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은 반려동물과 실험동물에

표 4. 독일 동물보호법의 기본원칙

분류	내용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을 그 동물의 종류와 본능에 맞게 적절하게 먹이를 제공하고, 돌봐야 하며 행동에 맞게 기거하도록 하여야 함. - 동물에게 그 종에 따른 행동을 제한하여 고통, 질환 또는 상해를 가해서는 아니 됨. - 해당 동물에 적합한 먹이, 보호 및 행동에 맞는 기거에 필요한 지식과 자격이 있어야 함. - 동물에게 아래와 같은 공격적인 행위에 의해서 훈련시키거나 길들이는 행위를 금지함. -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에게 해당 동물의 상태가 명백하게 감당할 수 없거나, 명백하게 해당 동물의 힘을 초과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함. -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 질환이나 상해와 연결되는 교육이나 훈련을 금지함.
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척추동물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상태(마취 등)에서만 도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마취가 불가능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의 특별허가가 있을 경우 마취를 취하지 않아도 됨. - 조류의 도축에 대해서는 마취의무를 예외시킬 수 있음.
시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경우를 제외하고 척추동물에 대해서는 마취 없이 고통이 수반되는 시술을 할 수 없음.
실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 규정된 목적으로만 진행될 수 있음. - 척추동물에 대한 실험은 그 실험을 통해서 기대되는 고통, 질환 또는 상해가 실험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윤리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시행될 수 있음. - 무기, 탄약 등 시술을 금지함. - 엽연초생산물, 세탁제, 화장품의 실험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법규 명령을 통하여 예외를 규정할 수 있음. - 동물실험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학문적 지식수준, 실험자의 전문지식 수준 등 준수사항 포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추가교육을 위한 시술 및 처치. - 동물의 사육 및 보유, 동물의 매매. - 반입, 통상 및 보유 금지. - 동물보호를 위한 기타 규정 등.

자료 : 독일, 동물보호법(Tierschutzgesetz),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독일 동물보호법해외법률소개, 제 242호.

대한 내용이 중심이었고,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산업은 발전하였으나, 동물복지는 특별한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현재도 농장동물복지에 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관련 법안은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동물보호에 관한 연방법은 2010년 기준 93개로 집계되는데, 그중 농장동물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연방법은 1873년에 제정된 “28시간법”과 1958년에 제정된 “인도적 도살법” 등이다. 농장동물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내용은 주로 일부 주 단위에서 법률로 실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입법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는 식품유통업체가 자체 농장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맥도날드, 버거킹 등은 산란계와 소 등에 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준에 부합되는 축산물만 취급하고 있다.

(5) 일본

일본의 경우,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배경으로 1973년에 “동물보호관리법”을 제정하면서 동물복지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99년에는 동물학대 방지 개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한 “동물애호관리법”으로 법을 개정하여 실험동물과 산업동물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였고, 농장동물에 대한 논의와 규정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현재 농장동물의 복지를 위해 생산단계에서는 매일 관찰과 기록, 가축에 대한 애정 어린 취급, 양질의 사료와 물 급여 등과 같은 적절한 사양관리를 장려하고 있다. 일본 국민은 가축을 쾌적한 환경에서 기르는 것 자체가 가축이 건강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가축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켜 생산성 향상으로도 연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자국의 실태에 부응하기 위해 축종별 사양관리 지침을 공표하고, 이를 기초로 생산자 단체인 사단법인 축산기술협회에 의해 자주적인

표 5. 28시간법의 주요 내용

분류	주요 내용
감금	-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 철도운송업자, 속달운송업자, 일반운송업자(항공/수상 운송 제외), 그 운송업자의 관재인, 수탁자, 임차인, 또는 동물운반선의 선주나 선장은 미국을 통과하거나 미국 내에서 이동할 때 사료와 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동물을 하차시키지 않고 연속 8시간 이상 차량이나 선박에 가둬놓을 수 없음.
하차, 사료, 급수, 휴식	- 최소한 연속 5시간 동안 사료와 물, 휴식이 보장되는 우리에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차시킴.
제외 경우	- 사료와 물, 휴식 공간이 보장된 차량이나 선박으로 운송할 때
처벌	- 위반할 시 100~500달러 미만의 벌금

자료: United States Code Annotated(U.S.C.A.)(미국연방법규집), Transportation animals(동물 운송), 2012.

표 6. 인도적 도살법의 주요 내용

분류	주요 내용
인도적 방법	- 소, 송아지, 말, 노새, 양, 돼지 및 기타 가축의 경우, 족쇄를 채우거나 매달거나 몰아넣거나 내던지거나 बे기 전에 모든 동물을 일격 또는 한 번의 충격, 또는 빠르고 효과적인 전기적 수단, 화학적 수단,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함. - 경동맥을 날카로운 도구로 동시에 순간적으로 끊음으로써 동물이 두뇌의 무기력에 의해 의식을 잃게 되는 도살 방법과 그러한 도살 시의 가축 취급을 규정하고 있는 유태교나 다른 종교의 의식에 따라 도살함.
방법의 지정	- 도살 작업의 속도 및 범위 측면에서 실행 가능하면서도 기존의 다른 방법과 현재의 과학적 지식 측면에서 인도적인 가축 도살 방법과 도살 시 취급 방법을 개발하고 결정하기 위한 연구, 조사 및 실험을 수행하고 지원하고 장려함.

자료: United States Code Annotated(U.S.C.A.)(미국연방법규집), Humane Methods of Livestock Slaughter(인도적 도축), 2012.

표 7. 산업동물의 사육 및 보유에 관한 기준

분류	주요 내용
일반원칙	- 관리자 및 사육자는 산업동물의 생리, 생태, 습성 등을 파악함.
정의	- 최소한 연속 5시간 동안 사료와 물, 휴식이 보장되는 우리에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차시킴.
위생 및 안전유지	- 관리자 및 사육자는 산업 동물의 적절한 사육 또는 보유를 위해 산업 동물의 위생 관리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함. - 관리자 및 사육자는 산업 동물의 사육에 있어서 산업 동물의 안전유지에 힘쓰는 동시에, 산업 동물 학대를 방지해야 함.
도입 및 수송	- 관리자는 시설의 입지, 정비 상황 및 사육 능력을 감안해 산업 동물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함.
위해방지	- 관리자는 산업 동물이 질병에 걸릴 것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자 및 사육자의 건강에 대해서 필요한 건강관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함.
생활환경	- 관리자 및 사육자는 산업 동물의 배설물을 적절히 처리해야 하고, 산업 동물의 소음방지 등 생활환경의 보전에 힘써야 함.

자료: 環境省, 産業動物の飼養 及び保管に関する基準, 平成25年(환경성, 산업동물의 사육 및 보관에 관한 기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산란계와 돼지의 동물복지 사양관리 지침은 2008년, 육계와 젓소의 동물복지 사양관리 지침은 2009년, 육우의 동물복지사양관리 지침은 2010년에 각각 제정되었다.

일본은 유기축산 인증기준에 동물복지와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복지에 대한 별도의 독자적인 정책 및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제도가 없다. 따라서 동물복지 인증 대신 2005년에 제정된 유기축산 인증인 JAS로 대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유기축산 인증은 농림수산성에 등록된 일본 국내/외 지정인증기관에서 진행한다. 일본의 농장동물복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은 “산업동물의 사육 및 보관에 관한 기준”과 “동물의 도살 처분 방법에 관한 지침”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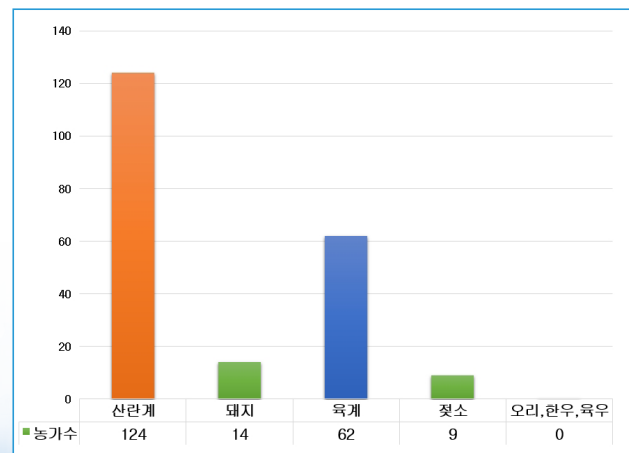
2.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그 동안 우리나라 축산업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규모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밀집사육으로 인한 가축의 면역력 저하와 분뇨처리 등의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또한 살충제, 항생제 등 사육단계에서의 위해요소들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동물복지는 1991년 동물보호법의 제정

과 더불어 도입되었다. 이후 두 번의 전부 개정을 포함하여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2010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및 축산물 인증표시를 추진하였다. 또한 동물복지 운송차량, 도축장 지정제, 동물운송 규정 의무화, 농가/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이후 도입 용이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축종별로 순차적 도입을 추진하였다. 2012년 산란계농장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우/육우/젓소/염소, 2016년 오리인증이 시행되었다. 인증농장 수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육계와 산란계 외 다른 축종에서 동물복지가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운반업과 도축장의 동물복지 인증 유무 그리고 둘째, 추진 시 육계와 산

그림 1. 동물복지 농장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2019.04.10.

란계에 비해 많은 시설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 생활하는 모든 환경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동물복지와 일반사육은 환경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3. 동물복지 인증(육계 기준으로)

동물복지 사육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정의하는 기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동물의 생명유지와 생산활동에 나쁘게 작용하는 환경요소임에는 틀림없다. 즉, 모든 환경요소들은 스트레스로 발전할 수 있고, 이는 생산성, 품질,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복지의 기준은 가축

4. 경제성(육계 기준으로)

동물복지는 관행사육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세부사항을 보면 사육밀도에 따른 생산성 약 23% 하락, 연료비 증가, 노동력 증가, 왕겨 및 계분처리비용 증가, 추진 시 시설비 소요 등을 들 수 있다. 농가의 손해를 없애기 위해 동물복지를 운영하는 계열사에서는 농가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표 8. 동물복지 기준 (동물복지사육과 일반사육 비교)

구분	일반사육	동물복지사육
일반기준	- 무허가 허용, 다른 축종 사육 허용 - 사육일령에 대한 기준 없음 - 대부분의 농장이 축이직업 진행	- 일반(관행) 사육방법을 적용하는 계사금지 - 28일 이상 사육 - 올인올아웃이 원칙이나 동태이 가능
농장기준	- 무허가 가능	- 무허가 불가능
항생제 사용	- 치료목적 가능	- 치료목적 가능/휴약기간 2배 준수
사료	- 항생제(복사동제) 사용가능	-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의약품을 첨가금지 -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이 포함 금지
급이	- 기준없음	- 원형 또는 타원형태 급이기 : 육계·토종닭 65수당 1대 이상 삼계 110수당 1대 이상 - 전류가 흐르는 철사 금지
급수	- 기준없음	- 니플형과 컵형 개수 : 10마리당 1개 이상 - 수질검사 : 생활용수기준 19가지 + 일반세균
사육밀도	- 무창계사 39 kg/m ² - 개방계사 강제환기 36 kg/m ² 자연환기 33 kg/m ²	- 육계·토종닭 : m ² 당 19수 이하 및 30 kg/m ² 이내 - 삼계 : m ² 당 35수 이하 및 30 kg/m ² 이내
	- 헛대 없음	- 헛대설치(1,000수/ 2 m)
	- 격리공간 없음(즉시 도태)	- 격리공간 : 이상행동을 하는 계군 별도 격리
기타사육형태	- 초기/전기/후기로 구분하여 점등시간 조절 • 초기 : 1-4시간(점진적 증가) • 전기 : 5-8시간(유지) • 후기 : 4-1시간(점진적 감소) * 농장별 운영방법의 차이가 큼.	-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된 명기 - 최소 6시간 이상의 연속된 암기
	- 기준없음	- 암모니아 농도 : 25 ppm 이하 - CO ₂ 농도 : 5,000 ppm 이하
	- 기준없음	- 20 lux 이상
	- 없음	- 췌는 습성을 위한 녹색채소 공급 - 볏짚 등 놀이기구 필요
	- 기준없음	- 경보장치, 안전설비, 비상발전기, 소방장치 필요

자료: United States Code Annotated(U.S.C.A.)(미국연방법규집), Humane Methods of Livestock Slaughter(인도적 도축), 2012.

에서 육계 동물복지를 운영하는 회사는 H사와 C사 두 곳이고, 모두 농가에 kg당 80원-100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H사 기준으로 농가는 인센티브를 지원 받고 사육을 하여 인증받기전과 비교했을 때 수익이 기존대비 평균 약 16%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운영비의 증가로 농가에서의 수익은 기존대비 약 10% 이내로 보고 있다.

계열사는 동물복지를 운영하면 수익이 나는 것인가? 현재 동물복지를 운영하는 H사의 운영실적을 보면 2018년 한해 468백만 원 적자를 봤다. 물론 동물복지가 성장하는 과정이기에 적자는 피할 수 없다. 적자의 주된 요인은 상품화율 저조이다. 동물복지 인증의 개념이 아직 소비자에게 확산되지 않아 제품 생산대비 판매는 19%이다. 즉, 100마리의 동물복지를 생산한다면 19마리만 동물복지로 판매가 되고, 나머지는 일반 닭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금액은 일반 닭에 비해

약 24% 정도 비싸게 판매하지만, 이렇게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동물복지 확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는 동물복지 닭을 얼마에 구입할 수 있을까? 대형마트의 온라인 판매를 조사한 결과, 일단 닭의 가슴살이 100 g 기준 평균 1,349원, 동물복지 가슴살 100g 기준 평균 1,744원으로 동물복지 가슴살이 일반 닭의 가슴살보다 약 29%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는 비싼 값을 지불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식품을 소비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동물복지 제품의 장점(하림 기준으로)

현재 가장 활발하게 동물복지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하는 회사는 “하림”이다. 하림은 국내에 동물복지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전북 정읍 소재의 도계장에 동물복지 생산시스템을 도입하며 '행복한 닭'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하는 동물복지 기준보다 더 까다롭게 관리된 닭을 상품화한 '그리너스'를 2018년 05월 출시하였다.

'그리너스'는 사료부터 관리되며, 동물의 습성을 존중해 스트레스를 최소화한 농장에서 키운다. 생산농장에서는 높은 곳을 좋아하는 닭의 습성을 고려해 계사 내에 햇대를 설치하고, 닭의 쪼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양배추 등의 녹색채소 등을 제공한다. 또한 기준 이상의 자리깃(왕겨)을 제공하여 몸 단장 등을 할 수 있게 해 닭의 본능을 최대한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사육밀도는 동물복지 인증기준보다 적은 수의 닭을 사육하여 움직임 및 활동성을 보장해 주고, 매일 8시간 이상의 밝은 조명을 제공하며, 최소 6시간 이상의 안정된 수면도 보장한다. 뿐만 아니라, 사료에는 포유류 및 조류 유래 동물성 단백질 성분은 물론, 항생제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사료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공정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았으며, 이력관리제도를 적용해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표 9. 동물복지 제품 가격

구분	A유통점	B유통점	평균
일반 닭 가슴살 (100 g)	1,450원	1,248원	1,349원
동물복지 닭 가슴살 (100 g)	1,825원	1,664원	1,744원
차이	375원(26%)	416원(33%)	395원(29%)

자료: 각 유통사 홈페이지(2019. 04. 10. 기준)

그림 2. 동물복지 제품



그림 3. 하림 동물복지 제품 “그리너스”



자료: 여성소비자신문

포장지 역시 외부 공기를 차단한 스킨팩 포장기법으로 닭고기의 신선함을 더욱 오래 유지시켜 준다.

III. 결론

현재 동물복지가 도입되고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경제성 및 시장수요를 판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이미 소비자의 인식수준은 높아져 있다. 산업에서 소비자의 needs를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대형 유통점에서 동물복지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체계가 아직 안정화 되지 않아 많은 소비자가 동물복지 제품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 공급체계를 안정화시키는 첫 번째의 방법은 많은 농가의 동물복지 인증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물복지를 운영하는 농장에 시설비 및 직불금 등을 지원하여 농가에서 동물복지를 도입 및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는 안정된 판매루트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학교 및 관공서 급식소 등에 동물복지 제품이 납품된다면 많은 업체들은 동물복지 제품을 앞 다투어 생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 기관의 인원 및 예산 증가도 필요하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복지 담당자는 수요에 비해 적다. 각 축종당 1명의 심사관이 있을 뿐이다. 동물복지 확산을 위해서는 인원과 예산확충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민간이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유럽이나 미국의 소비흐름과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볼 때 동물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동물복지가 점차 확산되어 윤리적인 소비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김옥진 외. 2013. 동물복지학.
2. 김태근. 2007. EU 동물복지 개념의 확대와 의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나인지. 2014. 국내 동물복지 정책동향. 농림축산식품부.
4.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통계. 2015.
5.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www.animal.go.kr/portal_rnl/farm_ani/certify_info.jsp
6. 송우진 외. 2016.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직불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이종인 외. 2014. 해외 동물복지 축산정책 현황조사. 농림축산식품부.
8. 조희경. 양돈산업현장 조사를 통해 바라본 농장동물복지 실태와 축산물 안전성. 동물자유연대.
9. 조현성. 2018. 육계 동물복지의 현황과 개선방향. 월간 풀트리.
10. 천명선. 동물복지와 동물권: 인간의 태도와 법제.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lottemart.com>
13. 여성소비자 신문.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12>